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빌립보서 1:12-21

정윤돈 목사님

서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눈이 바뀐다.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나니 세상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뀌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다.

(1) 요셉은 어릴 때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었다. 역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나 전혀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절대주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축복해도 좋고 안 쥐도 좋다.'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속 램넌트들이다.

(2)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민족적인 문제를 만났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율법, 제사, 성막 제도가 그 광야에서 완성되었다. 40년 광야생활 속에서 언약의 메시지가 정리된 것이다.

(3) 사무엘은 부족한 엘리 제사장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왕을 세워 나갔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상한 목사님 밑에서 자랐지만, 그 목사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모델적인 인물이 된 것이다. 사람 보지 마라.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핑계, 거짓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4) 다윗을 보라. 장인이름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사울을 미워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

(5) 엘리야는 정치적인 위기 시대 속에서 응답받고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다.

(6) 이사야는 순교했지만 가장 원색적인 복음메시지를 남겼다. 어려움도 환경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7) 초대교회, 사도바울은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환난, 핍박, 문제 속에 있었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복음 전파의 진

전을 누렸다. 문제,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의 신앙이 있었다. 가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 가정이 나의 십자가다. 이것을 믿을 때, 자녀 중에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 남편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바울은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체질이고 뿌리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내가 이것을 누리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전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것을 못 누리면 나의 성격과 체질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체질, 인격,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잘 배워야 한다. 그때 제자가 나온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 나온다. 나도 류목사님 기초 메시지를 300번, 400번 들었다. 시간만 나면 지금도 계속 듣는다. 그래야만 내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충만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24시 말씀 대신 TV로, 영화로,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영이 고갈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전도자로서 사역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형교단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가 보면, 전혀 메시지가 없다. 복음이 없다. 박사들이 연구해서 교재를 만들었지만, 메시지가 전혀 없으니까 사람이 안 모인다. 온 사람들은 '내년에는 안 올 것이다' 결심하고 간다. 그러다보니 정치, 교권 싸움, 자리다툼 밖에 못 한다. 목사들은 절대 말을 안 듣는다. 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못 꾸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모이고, 계속 훈련 받지 않나.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최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100배로 승화시켜서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응답받아야 한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그리스도화되어야 한다. 죽어있는 것까지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라.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만큼 새로운 눈을 열어라.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단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아가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 대신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1.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

(1) 출14:10-14 두 종류의 사람의 관점을 보라.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녀가지고 괜히 고생하게 됐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 그때 모세의 관점은 달랐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라.” 이 믿음이 있었다.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하루살이하고 나비가 놀다가 밤이 됐다. 나비가,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말했다. “내일이 뭔데?” (웃음) 관점이다. 하나님은 잠깐만 기다려라 하는데 그 잠깐이 천 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조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요셉을 보라.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써도, 아무 말이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억울한 일 뒤집어써야 하면 써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궁색하게 변명할 것이 없다.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떤 문제가 와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3) 욥이 모델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욥의 마음이 그러했다. 우리는 이 정도도 못 할 때가 많지 않나?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그렇게 반응한다. 이 마음으로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내가 손해를 한번 더 보고 내가 한 번 더 억울한 일 당해도 희생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손해 조금 보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수준이 우리 아이들 수준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고 하지 않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다 뒤집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2.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1)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롬8:28)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 여러분은 다 고급 신앙으로 올라가시기 바란다. 부족한 믿음도 있고 좋은 믿음도 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합력하여 축복이 될 것임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2) 환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약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빛이 있으면 참 좋다. 하나님과 빛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웃음) 빈 지갑이 얼마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지 모른다. (웃음)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항상 성령충만했다. (웃음) 모든 환난, 어려움, 부족함은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어려움과 부족함, 고통과 불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으로 바꿔라.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안 되면, 축복은 우리 후대에게 100배로 전달될 것이다.

(3)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고후1:3-4).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장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히12:6-11).

(4)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이다. (출14: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5)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고전10:13) 감당 못할 시험이 오는 것 같은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니, 왜 저에게 오는 이 문제는 제게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3.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빌4:6-7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길을 찾도록 간구하라.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다. 응답으로, 만남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신다.

(2) 살전5:18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3) 그래서 히13:15,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우리 인생 전체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 실패, 갈등 속에 있더라도, 결국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결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와 유혹, 환경 앞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는가?

(1)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요일2:14-15)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치있게 생각하면 안 된다.

(2) 히13:1-8을 보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관점이며 삶이다.

(3) 그러면서 담대해야 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4)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 매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겨우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달라졌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게 되어야 한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란다.